

김서현 프로필

현재 만 17세인 김서현은 2023년, 만 14세의 나이로 스위스의 유서 깊은 티보르 바르가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2024년 통영국제음악제, 2025년 압판 츠베덴과의 서울시향 신년음악회 등을 통해 국내 무대에 소개된 김서현은 2026년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WDR 쾰른 방송오케스타 내한 공연 투어,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등 굵직한 공연을 통해 국내에서 촉망받는 연주자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2020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김서현은 티보르 바르가 콩쿠르 우승 이전에도 2021년 이자이 국제 음악 콩쿠르, 레오니드 코간 국제 콩쿠르 우승, 2022년 토머스 앤 이본 쿠퍼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한 바 있다. 서울시향,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한경아르떼필하모닉, 부산시향, 대전시향, 성남시향, 전주시향, 창원시향, 목포시향 등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2023년 금호영재오프닝, 2025년 금호라이징스타 독주회를 비롯해 시카고에서 Dame Myra Hess Series를 통해 미국 데뷔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칸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작곡가 제프 스콧(Jeff Scott)의 세계 초연곡을 협연하여 호평을 받았다. 2024년에는 KBS 클래식 FM의 기획으로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시리즈로 데뷔 음반을 녹음했다.

현재 해외에서 ‘사랑 서현 김’으로 활동 중인 김서현은 스위스 시옹 페스티벌과 크슈타트 메뉴힌 페스티벌 등에 초청되어 협연 및 리사이틀을 가진 데 이어 헝가리 패논 필하모닉, 에스토니아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리투아니아 챔버 오케스트라, 튀르키예 부르사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페인 바스크 내셔널 유스 오케스트라 스페인 투어, 위스콘신 필하모닉의 2024/2025 시즌 오프닝 무대 등에 초청되어 협연자로 함께 했다. 2026년에는 안드리스 포가의 지휘로 첼리스트 다니엘 뮐러 쇼트와 함께 WDR 쾰른 방송교향악단과 쾰른 필하모니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고,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 함께 취리히 톤할레 극장에서 협연했다.

실내악 연주도 활발히 하고 있는 김서현은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실내악 페스티벌에 선발되어 기돈 크레머, 미클로스 페레니 등 클래식 거장들과 함께 연주하였으며, 여러 실내악 페스티벌에도 초대되어 율리아 피셔, 다니엘 뮐러 쇼트, 다이신 카시모토, 알레시오 백스, 클라라 주미 강, 김선욱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었다.

2025년 해리슨패럿과 계약한 김서현은 2026/2027 시즌에 스위스 루체른, 프랑스 몽펠리에, 스위스 로카르노, 노르웨이 베르겐, 헝가리 부다페스트, 영국 위그모어홀 등에서 협연 및 리사이틀 등 다양한 해외 무대를 앞두고 있다.

한국에서 이선이를 사사한 김서현은 현재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미하엘라 마틴의 지도로 수학 중이며, 대원문화재단과 아주 그룹의 후원을 받고 있다. 김서현은 Larsen Strings Artist로 선정되어 현을 지원받고 있으며, Tibor Varga Family의 후원으로 G.B.Guadagnini(1753, Milan)를 기한 없이 대여 받아 연주하고 있다.